

인생의 단계와 그 연령기준(I)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그리고 취업 및 은퇴적령기에 대한 대학생과 노인의 지각비교—

윤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는 20대의 청년과 60대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하는 인생단계의 시작연령을 경험적으로 조사한 것이다. 전체 응답자 400명(대학생 및 노인 남녀 각각 100명씩)은 청년기, 중년기, 그리고 노년기 등 세 가지 인생단계가 남녀 각각 몇세 부터 시작되는가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응답자보다 노인응답자들은 세 가지 인생단계 모두가 좀 더 늦게 시작되는 것으로 지각하였으며, 특히 여자응답자들은 남자응답자에 비하여 중년기가 더 늦게 시작되는 것으로 보였다. 이와같은 결과는 각 인생단계의 시작 연령이 자기가 현재 서 있는 연령에 따라 달리 지각되며, 또한 응답자의 연령이 많은 노인일수록 노년기의 시작연령을 더 늦추려는 동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아울러 취업적령기와 은퇴적령기에 대한 연령기준자료도 함께 제시되었다.

연령의 종류에는 신체적 나이, 생물학적 나이, 심리적 나이, 사회적 나이,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느끼는 자각연령 등 5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다(윤진, 1985). 그 가운데 신체적 나이는 출생부터 계산하는 달력에 따른 나이인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를 비롯한 인생의 단

계, 교육 받을 시기, 결혼 및 출산기, 취업 및 은퇴기, 등 사회적 나이의 기본적 기준이 된다. 그리하여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연령기준에 맞추어 그 사회가 요구하는 각 인생단계의 사고 및 행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각 인생단계에 따른 발달과업에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특히 한국인의 발달단계를 7가지 단계로 그 과업을 소상히 밝힌 최근의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김종서, 남정걸, 정지웅과 이용환, 1982).

그러므로 성인발달과정에 대한 심리학적 및 사회학적 기초연구는, 그 사회가 규정하는 인생단계에 대한 연령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문화에 속한 개인이 그 연령기준에 따라 어떻게 달리 행동하는가를 객관적으로 관찰, 측정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하게 된다.

이와같은 인생의 단계와 그 연령기준에 대한 연구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다. Tuckman과 Lorge(1953)는 노인

1) 이 연구는 윤진과 심재용(1986)의 "인생의 단계와 그 연령기준(II): 결혼, 출산시기에 대한 대학생과 노인의 지각비교" [한국노년학, 6, 5-12]와 연계된 것이다. 본 논문의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의 연령기준이 결혼·출산의 연령기준보다 앞서야 하므로 그 일련번호가 연구(I)이 되었다. 그러나 자료처리, 집필 등이 늦어져 연구(I)이 연구(II)보다 뒤 늦게 발표되었음을 밝혀둔다.

2) 이 연구의 자료수집, 처리 그리고 집필의 전 과정에 헌신적으로 도와준 인간발달복지연구소의 심재용 연구원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조계원군의 도움에 감사드린다.

들은 청년들에 비하여 “노년기”가 더 늦게 시작되는 것으로 지각한다고 밝혔다. 즉, 청년 집단은 노년기를 60세 혹은 65세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지각했으나, 중년층 집단은 65세, 그리고 노년층 집단은 70세로 지각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발표된 여러 연구 결과들에서도 노년층이 젊은 층보다 노년기의 시작이 더 늦은 것으로 지각하였다(Blau, 1956; Shanas, 1962; Zola, 1962). 이는 각자 본인이 현재 서 있는 연령에 따라 각 인생 단계의 시작 연령을 주관적으로 달리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Peters(1971)는 노년기 시작연령의 지각에 있어서 사회계층과 성별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며 특히 여자와 노동계층이 남자와 중산층보다 “노년기”가 더 빨리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에게 비해 여성이, 그리고 중산층 이상에 비해 노동계층이 일반적으로 연령증가에 대해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인생의 여러 단계에 해당되는 연령의 지각은 응답자의 성별 뿐만 아니라 지각대상인물의 성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Drevenstedt, 1976). 이는 남녀의 성별에 따라 신체적, 생리적 특성과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생의 각 단계의 시작이 남녀 간에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 예를 들면,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 취업, 그리고 은퇴가 인생 단계의 중요한 분기점이며, 여성의 경우 결혼, 출산, 폐경기, 그리고 배우자의 사망(특히,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수명이 5년 정도 길다. 1980년 현재의 한국인 수명 예상표, 남자 약 67세 여자 약 72세...한국개발연구원 추계 1982) 등이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특히 은퇴와 정년 퇴직이 남성의 경우 “노인”으로 간주하는데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데 반해, 여성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즉, 여성에 있어서는 손자녀의 출생, 가정에서의 역할 상실 등과 같은 역할 변화가 연령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노년기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대부분의 제조업체에서 55세의 강제정년퇴직을 공식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1988년부터 은행, 국영기업체 등에서 58세로 연장된 우리나라 근로자의 정년퇴직현황을 고려해 볼때, 취업과 은퇴의 적령기가 언제인가를 가늠해 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개인의 노년기에 대한 연령지각과 은퇴적령기에 대한 연령지각이 서로 부합될 때, 그는 강제정년퇴직이라는 제도에 의하여 희생당하지 않고 스스로 인생의 단계와 취업 및 은퇴를 조절하여 성공적인 노화를 이룩하고 ‘노년기의 자아’를 원만하게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취업과 은퇴적령기를 탐색하고 응답자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특히 은퇴연령이 어떻게 다르게 지각되는가를 위의 세가지 인생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같은 각 인생단계의 시작연령과 취업 및 은퇴 적령기에 대한 지각은 개인이 그가 속한 문화속에서 살아 감에 있어 심리적 적응과 정신건강 수준의 유지와 관련된다. 즉, 자기 자신이 느끼는 청년, 중년, 노년기의 나이와 사회와 문화가 규정하는 인생단계의 나이가 일치될 때 개인은 심리적, 사회적으로 완전하게 기능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 두가지 연령기준의 차이로 말미암아 심리적 압박을 받으며 생활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평생발달과 심리적 적응, 그리고 성공적인 성인기 및 노년기의 생활의 기본적인 기제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연령기준에 대한 지각의 경향을 먼저 파악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피험자를 대상으로 응답자의 연령 차이에 따라 청년기, 중년기, 그리고 노년기의 시작연령을 어떻게 달리 지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한가지 기본적인 사례의 자료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응답자의 연령 차이(청년과 노인)뿐만 아니라, 취업 및 은퇴적령기에 대한 기준과, 응답자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그리고 대상인물의 성별에 따른 취업 및 은퇴적령기 지각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한 가지 사례에 대한 규준적인 자료의 수집과 더불어 다음 다섯 가지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1) 청년 응답자 집단과 비교하여 노인 응답자 집단은 “노년기”가 더 늦게 시작되는 것으로 지각하며, 따라서 “청년기” 및 “중년기”도 더 늦게 시작되는 것으로 지각할 것이다.

2) 남성에 비해 여성은 사회적으로 “젊음”과 “미모” 등에 대한 강화를 많이 받아 왔으므로, 젊음과 미모의 쇠퇴에 더욱 민감하게 되어 “중년기” 및 “노년기”가 더

일찍 다가오는 것으로 지각할 것이다.

3) 동일한 반응집단 내에서도 지각 대상이 남자 혹은 여자임에 따라 청년기, 중년기, 그리고 노년기의 시작 연령 지각에서 달리 나타날 것이다.

4)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취업 및 은퇴 적령기를 달리 지각할 것이다. 특히 대상자가 남자일 경우보다 여자일 경우, 그 은퇴 연령이 더 빠르다고 지각될 것이다.

5) 응답자의 연령이 많을수록 은퇴 적령기가 더 늦어지는 것으로 지각할 것이다.

방 법

응답자

대학생 응답 집단은 연세대학교 재학생 200명(남.여 각 100명씩)이었으며, 1984년도 제 2학기에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는 학생들과 가정대 3, 4학년 여학생 40명으로 이루어 졌다. 이 집단의 연령 평균은 남자 20.08세(SD=1.48), 여자 19.75세(SD=1.38)이다.

한편, 노인 응답 집단은 1984년 9월 현재 서울의 한 노인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재학생 200명(남.여 각 100명씩)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남자 72.23세(SD=5.22), 여자 68.47세(SD=3.79)이다.

이들은 모두 건강한 노인들이며 전체 500명 이상의 노인이 등록하여 매 토요일 오후에 모여 교양강좌와 종교활동·서예·신체단련·등산·사회봉사등 완숙한 기독교회에 부설된 노인학교 학생들이다. 이 집단은 서울의 한 주거지역에 위치한 기독교회에 부설된 노인학교 학생들이지만, 반드시 모두 기독교도는 아니다. 이들은 대부분 서울시내에 거주하고 있으나 인천, 수원, 의정부등지에서 매주 통학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또한 대부분이 한글 해독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노령인구에 비해 교육수준과 사회경제적수준이 높은 계층이다. 또한 상당수의 노인들은 전문직에 종사한 후 은퇴한 사람들이며, 폭넓은 사회적 연결망을 갖고 있고 현재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절차

질문서에는 간단한 설명문과 함께 연령에 대한 12가

지 질문이 실렸는데 본 논문에서는 8개만 분석되었다. 그 내용은 “당신은 남자(혹은 여자)의 나이가 만 몇 살 될 때부터 젊은 남자,(중년 남자, 늙은 남자; 젊은 여자, 중년 여자, 늙은 여자)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이다. 또한 취업 및 은퇴적령기 조사질문은 “사람의 일생중에서 처음으로 직업을 갖기에(또는, 직업으로부터 은퇴 혹은 정년퇴직하기에)가장 적합한 나이는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각 질문은 연령평가의 대상자를 남자 및 여자의 경우로 나누어 “만 연령”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와같은 질문들과 더불어 응답자의 성별, 연령, 직업등 배경 정보를 쓰도록 했다.

조사 절차는 대학생의 경우, 강의실에서 집단으로 실시했고 약 15분간 소요되었으며, 노인의 경우는 노인대학을 방문하여 한 문제씩 차례로 읽어 주고 설명을 한 후 응답을 받았으며 모든 문제를 이와 꼭 같은 절차로 응답하도록 반복하였다. 그 질문에 대한 보충 설명과 응답에 대한 보조 역할(응답요령 전달, 기재, 등)을 위하여 심리학 전공 학부 학생 및 대학원생 10명이 도움을 주었다. 이때 노인대상조사의 보충설명과 보조역할을 수행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은 사전에 본 연구자의 감독하에, 이 연구의 목적과 의의, 그리고 조사절차등에 대한 사전 훈련을 받았다.

결 과

본연구의 연령 기준자료는 인생의 단계와 그 시작연령에 따른 평균연령과 표준편차가 제시 되었고(표 1과 표 2), 각 응답자 집단,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에는 반복 측정에 따른 변량분석 방법이 사용 되었다(표 3). 이때 특히 표 1에 나타난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의 기준 연령은 평가대상인 남녀의 성별을 무시하고 합산하여 처리한 평균연령이다.

응답자별 반응분류

첫째,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각 인생단계의 시작 연령을 달리 지각하고 있다. 대학생인 청년집단 응답자는 노인 집단에 비해 청년기(19.75세 대 21.68세)가 더 빨

표 1. 인생의 세 단계와 시작 연령에 대한 지각 (응답자별 반응분류)

응답자		인생의 단계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응답자 집단별 (N=400)	대학생	19.75 (1.97)		38.06 (3.46)		57.55 (5.18)	
	노인	21.68 (3.38)		37.71 (4.97)		60.56 (5.51)	
응답자 성별 (N=400)	남자	20.05 (2.78)		37.16 (4.58)		58.88 (5.97)	
	여자	21.45 (2.89)		38.61 (3.82)		59.22 (5.10)	
전체 응답자		젊은남자	젊은여자	중년남자	중년여자	늙은남자	늙은여자
		21.27 (3.30)	20.17 (3.25)	39.03 (4.91)	36.74 (4.79)	61.01 (5.95)	57.10 (6.37)

[평균연령:세, ():표준편차]

리 시작되고 ($F=52.09$, $df=1, 396$, $p<.01$)(표3-A), 노년기 (57.55세 대 60.56세)도 더 빨리 시작되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 ($F=32.00$, $df=1, 396$, $p<.01$)(표3-C), 그에 반하여 중년기의 시작연령(38.06세 대 37.67세)에 대해서는 응답자 노소간에 유의있는 차이가 없었다. (표3-B)

둘째,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각 인생 단계의 시작 연령에 대한 지각이 달라진다. 즉, 남자응답자는 여자응답자에 비해 청년기(20.05세 대 21.45세)가 더 빨리 시작되며($F=29.00$, $df=1, 396$, $p<.01$)(표3-A), 또한 중년기(37.16세 대 38.61세)도 더 빨리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F=11.84$, $df=1, 396$, $p<.01$)(표3-B). 하지만, 노년기에 대하여는(58.88세 대 59.22세) 응답자 남녀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표3-C). 이러한 경향은 청년기와 중년기에 대한 판별과 지각에 있어서 남자는 모든 인생의 단계가 더욱 젊은 나이에 시작되고, 여자는 더 늦게 시작되는 것으로 보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남자응답자는 모든 인생의 단계가 더 일찍 시작하는 것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으며 여자응답자의 경우 청년기와 중년기가 더 늦게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외모가 더 늦게 변화해 간다고 간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년기에 대해서는 남녀 응답자 모두가 비슷한 연령단계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

세째, 전체 응답자(400명)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청년기, 중년기, 그리고 노년기 등 세 인생 단계에 있어서 모두 여자의 인생 단계들이 남자의 인생 단계들보다 더 일찍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인생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연령이 적으며, 또한 여자가 더 일찍 늙어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청년기의 경우는 남자 21.27세 대 여자 20.17세로써 의미있는 차이이며($F=56.30$, $df=1, 396$, $p<.01$) 특히 중년기(남자 39.03세 대 여자 36.74세; $F=106.67$, $df=1, 396$, $p<.01$)와 노년기(남자 61.01세 대 여자 57.10세; $F=245.21$, $df=1, 396$, $p<.01$)에 있어서는 남녀간에 상

표 2. 남녀별 인생의 세 단계와 그 시작 평균연령에 대한 지각

응답자		인생의 단계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젊은남자	젊은여자	중년남자	중년여자	늙은남자	늙은여자
대학생 (N=200)	남자	19.69 (2.21)	18.50 (2.04)	39.54 (4.48)	35.60 (3.85)	61.36 (5.94)	54.66 (6.36)
	여자	21.02 (2.39)	19.80 (1.57)	39.51 (3.77)	37.60 (3.50)	58.61 (4.99)	55.56 (5.59)
노인 (N=200)	남자	21.72 (3.97)	20.08 (3.09)	38.06 (6.11)	35.44 (5.61)	62.06 (6.83)	57.45 (6.48)
	여자	22.64 (3.59)	22.29 (4.35)	39.02 (4.93)	38.32 (5.25)	62.00 (5.27)	60.72 (5.32)

[평균연령:세, ():표준편차]

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표 1).

네제, 응답자 노·소의 두 집단과 응답자 성별과의 상호 작용은 노년기[늙은 남자/여자 시기]에서만 나타났다. 대학생 남자 집단이 노인 여자 집단 보다 노년기가 더욱 빨리 오는 것으로 지각한다($F=5.65$, $df=1$, 396 , $p<.05$)(표3-C).

즉, 응답자의 연령이 어리고 여자 일수록 응답자가 노인이고 남자일 경우보다 더욱 의의있게 노년기가 늦게 시작되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 이와같은 상호작용에 대하여 Cichetti(1972)의 approximation 방법 이용하여 Tuckey의 정직유의차(honestly significant difference; HSD)검증 [커크, 1984; p102-104] 한 결과 critical

표 3. 인생의 세가지 단계의 시작 연령에 대한 변량 분석(Repeated measure ANOVA)

SOURCE	df	MS	F
A. 젊은남자-젊은여자			
응답자연령	1	744.980	52.09 ***
응답자성별	1	414.720	29.00 ***
응답자연령 × 응답자성별	1	3.125	.22
간 여	396	14.301	
젊은남자/젊은여자가 되는 연령(R)	1	242.000	56.30 ***
R × 응답자연령	1	2.205	.51
R × 응답자성별	1	19.845	4.62 *
R × 응답자연령 × 응답자성별	1	21.780	5.07 *
간 여	396	4.298	
B. 중년남자-중년여자			
응답자연령	1	24.85125	.70
응답자성별	1	421.95125	11.84 ***
응답자연령 × 응답자성별	1	43.71125	1.23
간 여	396	35.62534	
중년남자/중년여자가 되는 연령(R)	1	1051.11125	106.67 ***
R × 응답자연령	1	80.01125	8.12 **
R × 응답자성별	1	195.03125	19.79 ***
R × 응답자연령 × 응답자성별	1	.15125	.02
간 여	396	9.85403	
C. 늙은남자-늙은여자			
응답자연령	1	1812.02000	32.00 ***
응답자성별	1	23.12000	.41
응답자연령 × 응답자성별	1	320.04500	5.65 *
간 여	396	56.83285	
늙은남자/늙은여자가 되는 연령(R)	1	3057.62000	245.21 ***
R × 응답자연령	1	186.24500	14.94 ***
R × 응답자성별	1	609.00500	48.84 ***
R × 응답자연령 × 응답자성별	1	1.28000	.10
간 여	396	12.46932	

* $p<0.5$ ** $p<.01$ *** $p<.001$

value=3.14이다. 그러므로 이 검증 역치 3.14보다 큰 차이가 나는 집단끼리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결과에 의하면 “노년기”시작연령에 대한 대학생 응답자의 반응[남자대학생의 반응 : 58.01세, 즉, 표 2 첫행(노년기)의 $(61.36+54.66)/2$: 여자대학생의 반응 : 57.08세, 즉, 표 2 둘째행(노년기)의 $(58.61+55.66)/2$]과 노인응답자의 반응[남자 59.76세, 즉, 표 2 셋째행(노년기)의 $(62.06+57.45)/2$: 여자 61.36세, 즉, 표 2 넷째행(노년기)의 $(62.00+60.72)/2$]을 비교한 결과 차이가 3.14가 넘는 경우는 두가지 뿐이다. 즉, 노인여자 응답자(61.36세)와 대학생 여자 응답자(57.08세)의 차이($d=4.28$ 세), 그리고 노인여자응답자($d=61.36$ 세)와 대학생 남자응답자(58.01세)의 차이($d=3.35$ 세)뿐이다. 그러므로 성별 × 연령의 상호작용은 오직 노인여자 응답자와 대학생 남·녀 응답자와의 반응차이며 노인여자응답자들이 대학생들보다 노년기가 늦게 오는 것으로 보고있다.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반응분류

다음에는 청년기, 중년기, 그리고 노년기의 세 인생 단계를 대상자의 성별로 각각 구분하여 그 결과를 보고자 한다(표 2).

1) 청년기에서는 대상자의 성별(R)×응답자의 성별의 상호작용, 그리고 대상자의 성별(R)×응답자의 연령×응답자의 성별의 상호작용이 나타났다(표3A). 이때 Tuckey의 HSD검증에 의한 Critical value=0.88이다. 이 자료에서 대상자의 성별(R)×응답자 성별과의 상호작용($F=4.62$, $df=1,396$, $p<.05$)이 있다. 이는 남자응답자일수록 젊은 남자 대 젊은 여자 시작연령시기 $[20.75$ 세 즉, $(19.69+21.72)/2$: 대 19.29세 즉, $(18.50+20.08)/2$; $d=1.46$ 세]가 더 빠르고 또한 그 차이가 더 크고, 여자 응답자일수록 더 늦게 그 시기에 진입하며 그 차이가 작은 것으로 지각한다[21.83세 즉, $(21.02+22.64)/2$: 대 21.05세 즉, $(19.80+22.29)/2$; $d=0.78$].

또한 대상자의 성별(R)×응답자의 연령 × 응답자의 성별 사이의 상호작용이 나타났다($F=5.07$, $df=1,396$, $p<.05$). 즉, 응답자가 노인이며 여자일 수록 젊은 남

자 대 젊은 여자 시작 연령 시기(22.64세 대 22.29세, $d=0.35$ 세)가 늦게 시작되고 그 연령차이가 작은 것으로 보고, 응답자가 대학생이며 또 남자일수록 젊은 남자 대 젊은 여자의 시작 연령 시기(16.69세 대 18.50세, $d=1.81$ 세)가 더 빨리 시작되고 또 그 차이가 큰 것으로 본다. 그러나 대상자의 성별(R)×응답자의 연령과의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때, 대학생(남녀)과 노인(남녀)이 청년기(젊은 남자 및 젊은 여자)의 시작연령에 대해서 보여주는 반응은 8가지조건에 있어서 쌍으로 비교해 볼 때(최고 나이 22.64세 — 최저나이 18.50세) $d=.88$ 세 이상으로서 대부분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중년기에 관한 지각 반응의 분석을 보면 대상자의 성별(R)×응답자의 연령측면에서 상호작용이 있다($F=8.12$, $df=1,396$, $p<.05$). 이와같은 상호작용에 대하여 Cicchetti approximation방법에 따른 Tuckey HSD검증의 결과 Critical value=1.31이다. 그러므로 1.31보다 차이가 크면 유의있는 차이가 각 집단마다 있게된다. 즉, 노인 응답자 일수록 중년 남자 대 중년 여자의 시작 연령(38.54세 대 36.88세, $d=1.66$ 세)이 약간 이르며 시작 그 차이가 작으며 대학생 응답자일수록 이 두 연령(39.52세 대 36.60세, $d=2.92$ 세)이 약간 늦게 시작되며 그 차이가 큰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표3B).

그리고 대상자의 성별(R)×응답자의 성별간에 상호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F=19.79$, $df=1,396$, $p<.01$). 그러므로 남자 응답자일수록 중년 남자 보다 중년 여자의 시작 연령(38.80세 대 35.52세, $d=3.28$ 세)이 더 빠르며 또 차이가 크고, 여자응답자일수록 중년기(남자 39.26세 대 여자 37.96세, $d=1.30$ 세)가 더 늦게 시작되며 차이가 작은 것으로 본다. 또한 중년기(중년남자 및 중년여자)의 시작연령에 있어서도 8가지 조건으로 나누어 비교해 볼 때(최고나이 39.54세 부터 최저나이 35.44세) 대부분이 $d=1.31$ 세 이상으로써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신의 연령이 이미 만60세를 넘긴 노인은 자신을 기준으로 하여 중년 세대를 규정하여 보게 되므로 대학생의 지각보다 중년기가 더 늦게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남자 응답자의 경우가 여자 응답

자의 경우보다 중년기 여성의 나이가 더욱 작은 것으로 지각하는 것은 특히 여성에 대하여 신체적 외모나 아름다움, 청춘기 등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고정관념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자응답자들은 가능한 한 자신들의 중년기 진입연령을 늦추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응답자의 연령집단×성별×대상자의 성별(인생단계의 시작)연령간의 3원 상호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3) 노년기에 관한 연령 지각 반응의 분석을 보면, 응답자의 연령 및 성별에 따라 남녀의 노년기 시작 연령을 달리 보는 두가지 상호작용이 나타났다(표 3-C) 즉, 대상성별(R)×응답자의 성별과의 상호작용($F=48.84$, $df=1,396$, $p<.001$)과 대상성별(R)×응답자의 연령과의 상호작용($F=14.94$, $df=1,396$, $p<.001$)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하여 Cicchetti approximation방법에 따른 Tukey HSD검증을 실시한 결과 Critical value=1.47이다. 따라서 각 집단간의 차이가 1.47보다 크면 이는 유의있는 차이가 된다. 그러므로 남자 응답자일수록 “늙은 남자 시기”가 “늙은 여자 시기”(61.71세 대 56.22세, $d=5.49$ 세)보다 더 늦게 시작하는 것으로 지각하고, 여자 응답자일수록 더 늦게 늙은 시기에 진입하는 것으로 지각하는 그 차이는 작다(60.31세 대 58.14세, $d=2.17$ 세).

또한 대상성별(R)×응답자의 연령의 상호작용에서 보면($F=14.94$, $df=1,396$, $p<.001$)노인 응답자일수록

늙은 남자 대 늙은 여자의 시작 연령(62.03세 대 59.09세, $d=2.94$ 세)을 더욱 늦게 시작되며 그 차이는 작은 것으로 보고, 대학생 집단일수록(늙은 남자, 59.89세 대 늙은 여자, 55.11세, $d=4.78$ 세)더욱 일찍 시작되며 그 차이는 더 큰 것으로 본다. 그리고 노년기(늙은 남자 및 늙은 여자)의 시작연령에서도 8가지 조건끼리 쌍으로 비교해 볼 때(최고나이 62.06세부터 최저나이 54.66세) 대부분이 $d=1.47$ 세 이상이므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같은 결과에서도 노인은 젊은 응답자에 비해 노년기가 더 늦게 시작하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고, 여자 응답자들이 남자 응답자에 비하여, 여자의 노년기가 좀더 늦게 오는 것으로 지각하려고 노력한다. 이와같은 현상은 인생의 단계에 있어서 각기 자신이 현재 서 있는 시점의 차이에 따라 좀더 유리한 방향으로 지각하려 하며, 특히 여자 응답자의 경우 노화속도를 늦추려 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취업 적령기와 은퇴 적령기

취업과 은퇴는 인생의 단계 가운데 특히 사회적 역할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이러한 연령기준은 사회적 시계(social clock)에 따라서 개인이 사회속에서 원만하게 기능하는데 하나의 길잡이가 된다. 즉, 사회가 요구하고 또 관계적인 시기에 은퇴한다면, 그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은 매우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표 4. 취업 적령기 및 은퇴적령기에 대한 평균연령 지각

응답자	평가대상의 성별	취업 적령기		은퇴 적령기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대학생(N=200)	남자	25.04 (2.46)	22.82 (2.09)	63.73 (4.57)	51.47 (8.99)
	여자	25.26 (2.46)	23.45 (1.48)	63.09 (3.35)	57.11 (6.56)
	전체	25.15 (2.46)	23.14 (1.83)	63.41 (4.01)	54.29 (8.35)
노인(N=200)	남자	24.88 (2.92)	21.84 (2.67)	64.96 (3.44)	55.86 (7.17)
	여자	25.94 (2.28)	22.96 (2.28)	64.74 (5.05)	57.62 (7.07)
	전체	25.41 (2.67)	22.40 (2.54)	64.85 (4.31)	56.74 (7.16)
남자응답자(N=200)	전체	24.96 (2.69)	22.33 (2.44)	64.35 (4.08)	53.67 (8.41)
여자응답자(N=200)	전체	25.60 (2.39)	23.21 (1.93)	63.92 (4.22)	57.37 (6.81)
전체응답자(N=400)		25.28 (2.56)	22.77 (2.24)	64.13 (4.22)	55.52 (7.86)

[평균연령 : 세, () : 표준편차]

이와 관련하여 표 4에 나타난 취업 및 은퇴 적령기에 대한 연령기준표는 하나의 시사를 던져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아 취업시기는 20대 초반(남자 25.28세, 여자 22.77세)이며, 은퇴시기는 50대 후반과 60대 초반으로 남녀간에 확연히 다르다(남자 61.13세, 여자 55.52세). 이것은 취업적령시기 역시 현재의 현실적 가능성보다 더 빠른 것으로 지각되고, 은퇴시기도 현실보다 더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의 경우 은퇴적령기로 64세 경을 희망하고 있으나 우리의 현실은 55세 또는 58세의 강제정년퇴직 제도를 고집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자(은퇴연령 64세) 등 몇몇 특수한 직종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본인의 희망이나 사회적 지각보다 더 이른 연령에 강제 정년 퇴직 당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응답

자가 여자일 경우보다 남자일 경우에 취업연령지각에 있어서 더욱 빠르게 지각하고 있다($F=12.24$, $df=1$, 396 , $p<.001$), (즉, 남자 응답자 전체의 반응; 남자 취업 적령기 24.96세/여자 취업 적령 22.33세; 여자 응답자 전체의 반응; 남자 취업 적령 25.60세/여자 취업 적령 23.21세). 이는 여자 응답자들 보다 남자 응답자일수록 취업을 보다 이른 나이에 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아 남자의 취업 적령기(25.28세)가 여자의 취업 적령기(22.74세)보다 더 늦게 시작된다($F=698.10$, $df=1, 38$, $p<.001$). 이러한 경향은, 여성이 고졸 정도에서 단순 사무직, 판매직 등에 많이 취업하며 남성의 경우 대학졸업, 군복무 및 보다 중요

표 5. 취업적령기 및 은퇴적령기에 대한 변량 분석(Repeated measure ANOVA)

SOURCE	df	MS	F
A. 취업연령기			
응답자연령	1	11.281	1.20
응답자성별	1	114.761	12.24 ***
응답자연령 × 응답자성별	1	22.111	2.36
간 여	396	9.373	
남자/여자의 취업연령(R) (대상의 성별)	1	1262.531	698.10 ***
R × 응답자연령	1	49.501	27.37 ***
R × 응답자성별	1	2.761	1.53
R × 응답자연령 × 응답자성별	1	1.531	.85
간 여	396		
B. 은퇴적령기			
응답자연령	1	756.605	15.50 ***
응답자성별	1	534.645	10.95 ***
응답자연령 × 응답자성별	1	149.645	3.07
간 여	396	48.808	
남자/여자의 취업연령(R) (대상자의 성별)	1	14843.645	596.92 ***
R × 응답자연령	1	51.005	2.05
R × 응답자성별	1	852.845	34.30 ***
R × 응답자연령 × 응답자성별	1	231.125	9.29 ***
간 여	396	24.867	

* $p < .05$ ** $p < .01$ *** $p < .001$

한 기술적 또는 관리직에의 진출로 인하여 보다 늦게 취업한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하겠다(표 5-A). 또한, 응답자가 남자인 경우가 여자인 경우보다 여자의 은퇴 연령을 더 빠르다고 지각하고 있다(남자의 응답 53.67세, 여자의 응답 57.37세), ($F=34.30, df=1, 396, p<.001$).

한편, 은퇴 적령의 경우, 대학생 응답자보다 노인 응답자가 퇴직연령을 더욱 늦은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표 5-B) ($F=15.50, df=1, 396, p<.001$). [즉, 대학생 응답자의 연령지각; 남자 은퇴연령 63.41세/여자 은퇴연령 54.29세; 노인 응답자의 연령지각; 남자 은퇴연령 64.85세, 여자 은퇴연령 56.74세]. 이러한 현실은 청년에 비해 노인이 스스로의 능력에 자신감을 갖고 사회로부터의 유리를 가능한 한 늦게 하려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남녀 응답자 간에는 은퇴 시기에 대한 지각에 차이가 나는데 전반적인 은퇴연령을 남자응답자들은 59.0세(즉, 표4의 7행 : (남자 은퇴적령기 64.35세+여자 은퇴적령기 53.67세)/2)로, 또 여자응답자는 60.6세(즉, 표4의 8행(남자 은퇴적령기 63.92세+여자 은퇴적령기 57.37세)/2)로써 여자응답자가 은퇴적령을 약간 더 늦은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F=10.09, df=1, 396, p<.001$). 그리고 은퇴 적령기의 기준에는 남자(64.13세)가 여자(55.52세)보다 훨씬 더 늦게 은퇴해야하는 것으로 지각되었다($F=596.92, df=1, 396, p<.001$). 그러나 남·여 은퇴 적령기와 응답자의 연령 사이에는 상호작용이 없었다.

그러나 변량분석에서 상호작용(대상자의 성별(R)×응답자의 성별)을 볼 때, 남자응답자보다 여자응답자일수록 여자의 은퇴 적령을 더 늦은 것으로 본다(즉, 남자응답자의 53.67세 대 여자응답자의 57.37세)($F=34.30, df=1, 396, p<.001$). 특히 이러한 경향은(대상자의 성별(R)×응답자의 연령×응답자의 성별)이라는 3원 상호작용이 나타나($F=9.29, df=1, 396, p<.001$), 여자 은퇴 적령에 대하여 대학생남자일수록(51.47세) 노인 여자(57.62세)보다 더욱 이른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표 5-B). 이러한 사실은 남자 대학생들은 여성의 취업 및 은퇴가 신체적 용모와 젊음, 능력이 취업능력과 관련된

지각 변인이 되지만, 여자 노인의 경우에는 여성을 보다 늦게 노화하고 여전히 일 할 능력을 갖고 있는 인물로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논 의

이상과 같은 두 집단을 대상으로 얻어진 인생의 단계와 연령기준에 대한 결과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를 가설검증과 더불어 논의 할 수 있다.

1. 가설1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청년 응답자 보다 노인 응답자가[노년기] 및 [청년기]가 더 늦게 시작되는 것으로 보며[중년기]에 대해서는 청년과 노인응답자간에 지각의 차이가 없다. 이와같은 결과는 노인들이 특히, [노년기]단계의 시작연령을 가능한 한 늦추어 지각하려는 동기를 갖고 있지 않나 추측된다.

2. 가설2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여자 응답자들이 남자 응답자들 보다[젊음과 미모]의 쇠퇴에 대해 더욱 민감하므로 [중년기] 및 [노년기]의 시작 연령이 더 이르고 지각할 것으로 보았으나 본 연구 결과는 그 경향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 즉, 다만 [중년기]의 경우 여자 응답자가 남자 응답자 보다 이 시기가 더 늦게 시작되는 것으로 지각했으나, [노년기]에 대해서는 남녀 응답자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이와같은 결과는 [노년기]에 대해서는 남·여 모두의 반응하려는 경향이 비슷하나, [중년기]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여 그 시작시기를 의도적으로 늦추어 그 앞단계인 [청년기]를 더 오래 유지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응답자들이 남자 응답자들 보다 특히 [중년기]에 대하여 연령증가와 젊음의 상실에 대하여 더욱 민감하여 오히려 그 단계의 시작 시기를 의도적으로 늦추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3. 가설 3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동일한 인생 단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이 여자의 인생단계일 경우가 남자의 인생단계인 경우보다 더 빨리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즉[청년기], [중년기], 그리고 [노년기]에 걸쳐 일관성 있게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결과는 우리사회가 연령단계에 따라 남, 여성에 대해 거는 기대

와 고정관념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가설 1부터 가설 3까지의 세가지 인생단계와 그 시작 연령에 대한 노소간의 지각의 차이를 볼 때 우리는 몇 가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우선 무엇보다도 청년층인 대학생보다 60세 이상의 노년층이 인생의 각 단계를 늦게 시작된다고 지각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두 응답자집단이 각각 약 40년 정도의 연령차이가 있으므로 자기가 서있는 연령의 기준에서 각 인생단계를 보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령지각 차이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의 인생단계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전혀 달라질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살고 있고 사회와 문화는 청년중심이며 역동적이고 급격한 산업화와 변혁을 요구하는데 반해, 중년 또는 노년층 시민들은 개인의 연령지각과는 관계없이 중년 또는 노년층으로 취급되어 일선에서 퇴진당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그 평가대상이 남성인 경우보다 여성인 경우에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 여성은 능력과 경험과 같은 객관적, 실용적 기준보다는, 외모와 신체적 매력과 같은 주관적, 심미적 기준에 의하여 그의 '가치'를 인정받는 경향이 왕왕 있다. 이러한 사회적 고정관념과 관련된 연령지각은, 그 사회가 여성개인의 능력을 도외시하고 그들의 인생단계 특히 중년기와 노년기가 빨리 시작되는 것으로 잘못 규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개인은 아직 중년기나 노년기에 도달했다고 느끼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인물들과 사회규범, 법률과 제도는 이들을 강제로 중년기나 노년기에 이미 도달한 인물로 간주하게 된다. 이와같은 연령지각의 차이는 개인적 수준에서는 심리적 적응과 정신건강의 유지를 어렵게 하고 또한 사회적 수준에서는 전반적으로 그 사회구성원들의 부적응과 충분한 기능발휘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4. 가설 4에서 예언했던 바와 같이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취업 및 은퇴 적령기를 달리 지각하였다. 특히 평가 대상자가 남자인 경우보다 여자일 경우가 그 은퇴연령이 더 빠르다고 지각되었다.

뿐만 아니라, 가설 5에서 제시했던 응답자의 연령 변인이 「취업 적령기」의 평가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은퇴 적령기」의 기준 설정에 영향을 주고 있

다. 즉, 노인 응답자보다 대학생 응답자들이 개인의 은퇴 적령기가 더 일찍 오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 한편 취업 적령기와 은퇴적령기에 대한 연령지각에 있어서 남녀 응답자 간의 차이와 은퇴적령기에 대한 노소간의 차이는 우리 사회의 취업과 은퇴 연령규정에 대해 커다란 시사점을 던져준다.

우선 정년제가 완전히 폐지된(70세 정년제까지도) 미국이나, 기타 65세 이상이 은퇴연령인 일본과 구미 여러 나라와 달리, 우리의 경우 제조업체, 공무원등에 있어서 여전히 조기 정년퇴직제도가 법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개인의 희망과 그 사회나 법규가 취업 및 은퇴의 시기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 갤럽 조사 연구소(1984)의 한국, 일본, 태국, 미국, 영국, 프랑스의 6개국 비교 연구에서 한국은 가장 바람직한 은퇴 연령은 응답자 전체의 30.8%가 60세를, 10.3%가 65세를, 그리고 11.1%가 70세로 보고 있다. 이는 전체의 52.2%가 만60세 이상의 연령을 정년퇴직 연령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평균 64.13세가 남자의 정년퇴직 연령으로 그리고 여자의 퇴직연령은 55.52세로 보는 것은 갤럽조사의 결과와 상당히 부합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갤럽조사 연구에 따르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노인의 경우 69.2%가 계속 일하기를 원하며, 현재 직업이 없는 경우는 34.4%가 원하고 있고, 또 직업을 그만둔 연령도 전체의 34.9%가 50대, 31.9%가 60대초반(60-64세), 그리고 13.1%가 60대후반(65-69세)이다. 특히 여기서 두드러진 현상은 전체의 34.9%가 50대의 연령에서 은퇴했는데 그 비율은 기타 5개국의 비율보다 월등하게 많다(예 : 일본의 경우 26.5%, 미국의 경우 17.5%이다).

이러한 정년퇴직의 적절한 연령(남자 64.13세, 여자 55.52세)은 본 연구에서 “노년기”가 시작된다고 지각하는 나이(남자 61.01세, 여자 57.10세)와 연관시켜 볼 때 하나의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취업과 사회생활이 남자 중심인 사회적 특수상황을 고려할 때, 노년기가 만61세 이후에 시작되고 정년퇴직도 만64세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나라의 조기 정년퇴직 제도가 개인의 연령지각이나 은퇴 적정 연령 지각과

는 관계없이 일방적인 사회 제도에 의해 강제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지각된 은퇴 적령이 현실적인 제도와 법규보다 매우 늦다는 사실은, 기업체의 정년제도(예 : 윤능선, 1984), 및 공무원의 정년제도(예 : 손종석, 1984)에 있어서 개인의 신체적 건강과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이 연장되는 방향으로 깊이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5. 본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점과 앞으로 추후연구에서 계속 탐구해야 할 문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서는 20대의 청년층과 60대 이상의 노년층, 즉 극단적인 두집단을 대상으로하여 인생의 각 단계의 시작 연령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전 생애에 걸친 응답자의 변화와 반응의 차이를 보다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년층(40-45세)집단을 다시 선정하여 청년응답자 및 노인응답자 등의 반응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는 특히 인생주기의 중간지대에 있는 중년기의 남녀가 자기 자신이 속한 연령단계는 물론 그보다 높은 노년기를 어떠한 기준에 의해 판단하는가를 볼 수 있게 된다.

(2)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응답자의 연령은 남녀간에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노인 응답자에 있어서는 여자에 비해 남자가 평균 3.56세가 더 많았다. 이와같은 평균 연령의 차이로 말미암아 전체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중년기와 노년기의 시작연령이 더 늦은 것으로 시작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남녀간에 전혀 연령 차이가 나지 않는 인생단계의 집단들을 선정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3) 그리고 본 연구에서 밝혀진 인생의 단계에 대한 연령 기준을 실제 개인의 지각과 가족주기 등과 연결시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20세의 젊은이끼리 과연 스스로 청년기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60세의 노인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지각하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정관리학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가족주기 즉, 결혼 및 가족형성기, 첫 자녀출산, 자녀교육기, 자녀결혼기, 배우자 사망기등이 본 연령기준과 어느정도 적합한가를 검증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발표된 한국 노

시여자의 가족생활 주기 모형을 보면 (유영주, 1984), 초혼연령은 24.2세, 첫 자녀출산기를 24.8세, 그리고 막내자녀 출산연령을 26.6세로 보았으며, 노년기를 57세(막내자녀결혼연령), 62세(남편 사망 추정연령), 그리고 69세(본인 사망 추정연령)등 세 가지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여자의 인생단계 연령, 즉, 젊은여자(20.17세), 중년기(36.74세), 그리고 노년기(57.10세)는 유영주(1984)의 연구에서 얻어진 가족주기와 상당히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4) 이 연구의 응답자들은 20세 전후의 대학생과 노인학교 재학생인 노인들이었다. 그러므로 이들 두 응답자 집단이 우리나라 청년층과 노인층을 대표하기 어렵다. 즉, 연령은 비슷하나 대학생은 모든 한국의 청년층을 대표하기 어려울 정도로 학력이 높은 집단이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에 참가한 노인학교 재학생 노인 남녀 200명은 모두 한글해독이 가능하고 건강하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류이상에 속하는 집단이다. 이와같은 노·소 모두 평균보다 높은 집단을 선정한 것은 우선 한글해독을 통해 반응이 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집단을 선정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 연구로 완전한 연령기준을 잡는다고 보다 두가지 연령집단의 비교를 통한 연령기준설정과 지각의 차이를 보려는 하나의 사례적인 연구이다. 그러므로 그 연구목적과 결과, 그리고 그 논의 등에 있어서 이와같은 제한점이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중서, 남정걸, 정지웅과 이용환(1982). **평생교육의 체제와 사회교육의 실태**(연구논총82-7, 제6장)(평생교육적 관점에서 본 한국인의 발달과업)(p99-130) 경기도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손종석(1984). **정년정책과 관련제도(II)**-공무원 정년제.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편, 산업사회와 정년**, 서울 :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 유영주(1984). **한국도시가족의 가족생활주기 모형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 111-129

- 윤능선(1984). 기업경영과 조기정년. 아산사회복지재단편, *산업사회와 정년*, 서울 : 아산사회복지재단 재단.
- 윤진(1985). *성인·노인 심리학*. 서울 : 중앙적성 출판사.
- 윤진과 심재용(1986). 인생의 단계와 그 연령기준(Ⅱ), -결혼·출산시기에 대한 대학생과 노인의 지각비교-. *한국노년학*, 6, 5-12
- 커크, R.(이관용, 김기중과 박태진 번역), (1984). *실험실 계법-행동과학의 연구절차*, 서울 : 범문사 pp. 101-106, 및 <제 6장, 무선구획설계.>
-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84).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 (한국, 일본, 태국, 미국, 영국, 프랑스 6개국 노인의 식구조 비교조사). 서울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Blau, Z. S. (1956). Changes in status and age identific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1, 198-203
- Cicchetti, D. V. (1972). Extension of multiple-range tests to interaction tables in the analysis of variance. *Psychological Bulletin*, 77, 405-408
- Drevenstedt, J. (1976). Perceptions of onsets of young adulthood, middle age, and old age. *Journal of Gerontology*, 31, 53-57.
- Havighurst, R. L. (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3rd ed). N.Y. : David
- Neugarten, B. L., Moore, J.W., & Lowe, J.C.(1965) Age norms, constraints, and adult socializ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0, 710-717.
- Peters, G. R. (1971). Self-conceptions of the aged, age identification, and aging. *Gerontologist*, 11, 69-73.
- Shanas, E. (1962). *The health of older people A social survey*.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Tuckman, J., & Lorge, I.(1958). When does old begin and a worker become old? *Journal of Gerontology*, 8, 483-488.
- Zola, I. K. (1962). Findings about age among older people. *Journal of Gerontology*, 17, 65-68.

원고 초본 접수 : 1988.10.5

최종 수정본 접수 : 1988.12.2

Life Stages and Their Onset Ages(I)
— Perceptions of Onsets of Young Adulthood, Middle Age, and
Old Age, and the Ages for Employment and Retirements —

Gene Yoon

Yonsei University

Two-hundreds college students and two-hundreds senior citizens from a local senior citizen class(total 400 respondents) were asked to decide the onset ages of the three life stages, - young adulthood, middle age, and old age (manhood and womanhood, respectively) and the appropriate ages for employment and retirements. Data had shown that older respondents tend to delay the onsets of the middle age and old age comparing with the younger respondents. This means the older people have motivation to be treated younger and evade the social stereotype toward the old ages. In addition to that, the appropriate ages for employment and retirement were evaluated.